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중년기여성이 인지한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of Middle Aged Women

—Focused on the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they perceive—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조 교: 박 경 숙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Air and Correspondence Univ.

Assistant: Park Kyung Sook

〈 목 차 〉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IV. 분석결과 및 해석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고찰

V.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 Abstract 〉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woman and that of the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the subjects were 243 married women aged from 40 to 59 years old.

The survey instruments were Life Satisfaction Scale and FACESIII by using SPSSPC+ program package, especially ANOVA, Scheffe's test,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overall levels of life satisfaction were middling.
2. The family cohesions were relatively high, adaptability middling.
3. 1) The levels of life satisfaction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ages, frequencies of leisure activities, and levels of household income.
2) The levels of life satisfaction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levels of the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3) Dividing the family type into two part by the levels of cohesion and adaptability, the levels of life satisfaction had no differences in typeI based on curvilinea hypothesis, but those of life satisfaction had differences in type

II on linear hypothesis.

4. The results of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 the variables having an effects on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were revealed cohesion, frequencies of leisure activities, and the level of household income, and their explanatory power 33%.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오늘날 가족은 '가족의 위기'라고 표현할 만큼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더욱이 현대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변화에 민감히 반응하고 있는 가족은 신속·적절한 적응이 요망되고 있다(김태현·최정혜, 1989).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자기중심성으로 인하여 가족원간의 거리가 너무 멀어진다거나, 반대로 핵가족의 특성인 지나친 친밀감으로 인하여 가족구성원간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가족으로서의 장'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김순옥, 1988). 특히 사회인구학적·경제적 변인들은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쳐 전통적인 가족생활형태인 친족관계가 더 이상 사회조직의 기초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중년기가족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축적된 가족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특한 가족성격을 구축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체계이론의 관점에서 가족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족체계를 유지하는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 개념(Angell, 1936)은 가족의 이익·화목·결속을 중히 여기며 가정의 권위나 가정의 규칙에 엄격한 특성을 간직하는 동시에, 시대변화에 따른 가족가치관이나 행동양식이 개인중심화 경향으로 흐르는 과도기적 우리나라 중년기가족을 연구하는데 유용한 개념이 되리라 기대된다.

그리고 본연구에서 이러한 바람직한 중년기가족관계를 유지·향상시키려면, 먼저 가족문제가 개인이 속한 체계문제임을 인식하고 가족의 원만한 기능과 안정을 위해 가정을 운영하고 있는 주부를 중심으로 한 문제해결이 선행과제라고 여겨지므로 중년기여성성을 주연구대상으로 삼는 것은 의의있으리라 생각된다.

다. 그러나 중년기가족의 주축인 중년기여성은 이 시기에 평균수명 연장, 빈둥지기간(empty-nest period)의 장기화, 가족수입 및 여가증대, 여성교육의 보편화, 중년기여성의 취업률 증가, 중년인구의 증가추세 등의 요인으로 예전과는 상이한 중년기를 맞게 되었다(박경숙, 1991).

그러므로 개인의 심리적·환경적 요인과 그 생활역사에 따라 영향을 받는 복합적 감정인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를 알아보는 것은 가정을 구성하는 주부의 건강한 삶과 더불어 바람직한 중년기가족을 형성하기 위해 매우 유의미한 일이라 여겨진다.

현재까지 중년기연구의 종속변인으로는 생활의 질·위기·적응·결혼만족도·행복도·우울감 등이 다루어져 직·간접적으로 중년기생활만족도에 연관이 있다고는 하나, 중년기생활만족도 자체만을 변인으로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연구에서는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차원과 연관시켜 그 관계를 가정학적 측면에서 밝히고자 한다. 그 결과 중년기에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 대해 적응력을 향상시키며, 보다 성숙되고 원만한 중년기여성, 중년기가족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본연구결과를 중년기가족관계 및 중년기를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코저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고찰

1.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

중년기생활만족도란 '성공적'으로 중년기를 보내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변인으로 삶에 대한 정열과 관심 및 기대와 실재간의 일치정도에서 오는 주관적인 감정상태를 의미한다(김재인, 1989).

중년기를 연구한 학자들은 이 시기를 제2의 사춘기, 진수기, 탈부모기, 자유감의 시기, 샌드위치시기, 지도적 시기, 선구적인 시기 등의 용어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중년기의 특징을 적절히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김명자, 1989).

이러한 특징을 지닌 중년기는 연구자에 따라, 사춘기와 같은 격동과 혼돈, 위기의 시기로 보는 견해와 전환기로서 오히려 만족도가 높은 시기로 보는 견해가 상반되고 있다.

먼저 중년기를 위기로 보는 견해는 중년기위기가 불가피하며 이를 경험한 후에야 발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으로, 정신분석학자·심리치료자·임상연구가 등을 중심으로 한 많은 학자들(이기숙, 1982; Gould, 1972; Levinson, 1978)은 개인적·문화적·사회적 차이는 있으나, 4, 50대를 주로 위기의 전환기로 보아 스트레스 및 현실적응의 장애 등을 겪는 시기로 보았다.

더욱이 중년기여성의 경우는 남성보다 위기감빈도가 2-4배 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민성길 외, 1978). 특히 현대도시에 거주하는 중년여성들은 역할부족·역할상실로 인하여 권태·불안감·공허감·자아상실감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자신의 희망과 포부가 현실과는 크게 다름을 느낀 주부들은 사회진출을 이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박아청, 1984). 또한 전통적인 어머니역할을 중시하는 여성은 가족의 전환기로서 역할변화를 겪게 되며, 자녀독립에 즈음하여 자아개념이 낮아져 실망감·상실감에 빠지게 된다. 이를 볼 때 여성에게 있어 중년기는 자신의 생활스타일을 확고하게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안정감, 장애에 대한 불안감 등의 정신적 갈등이 심하게 나타나는 시기로 볼 수 있겠다(Livingstone, 1985).

이와는 달리 사회과학자를 중심으로 중년기를 부부관계면에서나 가족생활면에서 안정되고 만족도가 높은 시기로 보는 견해가 대두되었다. 이 시점에서 볼 때, 중년기는 목표를 재정의하고 안정되는 시기(Gould, 1972; Nydegger, 1976)이며, 자기확신감이

증가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보다 큰 자유감의 시기(Erdwins & Mellinger, 1981; Levinson, 1978)로 정체감 수립을 위해 노력하는 젊은이 집단이나 정체감을 상실한 노인집단보다 자기세계에 대한 정체감 위기로 부터 기인하는 병리적 증세가 가장 적다고 본다(Erdwins et al., 1981). 따라서 중년기가 인생초기보다 더 큰 생활만족도를 느끼며, 전보다 더 큰 자기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연령에 따라 상관없이 행복감, 슬픔, 기타의 감정 등의 만족도는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에 동일하다고 보는 견해(Cameron, 1988; Deutscher, 1975; Farrell & Rosenberg, 1981; Gould, 1972; Larson, 1978; Neugarten, 1975)와 오히려 불만족과 불확실한 시기는 중년이 아닌 20대에 만연하다(Baruch et al., 1982)는 연구결과도 나타나고 있다.

위의 이론을 종합해 볼 때, 중년기에는 대부분 생의 주요한 전환점이 되는 예측가능한 발달적 사건(폐경, 자녀독립, 은퇴 등)을 거의 의식하지 않은 채, 사회적 표준연령에 따른 적절한 시기의 변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혼란없이 지내나(Neugarten, 1975), 예측불허의 사건(이혼, 교통사고, 직업이동 등)이나 오랜동안 지속된 감정의 불안정이 부정적인 중년기생활만족도의 원인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2.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와 가족적응력 및 응집력

중년기에 가족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첫째, 가족원 상호간의 가치관 및 태도의 불일치, 둘째, 가족내 지위 및 역할의 혼란, 셋째, 가족규범의 쇠퇴, 넷째, 가족자원의 장기간 결손 등을 들 수 있다. 이렇듯 지속되는 내·외적 요인에 대응하여 균형을 잡기 위한 노력으로 가족은 반작용을 하기도 하며(Jackson, 1965; Satir, 1964), 체계의 지속을 목적으로 가족원들간의 관계, 지배적인 가치 및 구조 등을 변화시켜 나간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가족응집력과 적응력이 가족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유용한 개념

인 동시에, 기존연구를 통해 가족체계의 대표적 차원으로 입증되고 있는 바, 본연구에서는 이 개념을 도입하여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와 연결시켜 보기로 하겠다.

1)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와 가족응집력

어느 집단이거나 그 집단의 효율적인 기능과 활동역량은 집단구성원의 긴밀한 유대관계인 응집력에 따라 결정된다(윤진, 1985).

Olson 등(1983)은 이러한 가족응집력을 가족원 상호간의 정서적 유대감과 자율감의 정도라고 정의하면서, 응집력의 정도에 따라 과잉분리, 분리, 연결, 미분화 등으로 분류되며, 이때 과잉분리수준일수록 응집력이 낮고, 반면 미분화수준일수록 강한 응집력을 지닌 가족으로 보았다.

응집력수준에 대한 견해는 기존 연구결과를 통해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다. 첫째, 중간정도의 응집력수준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로, Galvin과 Brommel(1982)는 응집력이 지나치게 높은 가족은 미분화된 가족으로서 가족원들이 매우 가깝게 결합되어 자율성이나 개인적인 요구 및 목표달성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며 과도한 정체감을 갖는 반면에, 연속선상의 서로 다른 끝에 있는 가족은 과잉분리가족으로서 친밀감이나 가족응집력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며 가족원들은 자율성이나 개인성이 매우 높다고 하였다. 이 밖의 여러 실증연구(Carpenter, 1983; Clake, 1984; Lavee, 1985; Minuchin, 1974; Olson, 1988; Rodick et al., 1986)에서도 문제가족에서 가족응집력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양극인 경우가 나타나며, 응집력이 중간수준일때, 더 효과적인 가족기능을 수행하며 개인발달에도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둘째, 응집력수준이 높을수록 바람직하다는 견해는 Kennedy(1984), Herring(1985) 등의 연구에서 밝혀졌으며, 특히 중년기부부를 대상으로 한 Smith(1985)의 결과에서는 가족응집력과 가족만족간의 관계가 곡선적이 아닌 직선적 관계로 가족응집력이 높을수록 가족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본연구대상인 중년기와 가족응집력을 연결시켜 볼 때, 이 시기는 가족생활의 확장, 가족고유의 가치관·

생활양식 및 가족관계를 향상시키면서 가족구성원간의 응집력을 강화하는 과업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이점은 중년기 남녀의 위기감과 응집력을 연구한 결과(김명자, 1988)에서도 잘 나타나, 우리나라의 가족생활이 가족주의를 바탕으로 영위되면서, 가족의 응집력이 불안하고 냉정한 사회적 상황에 대처하는 굳건한 가족자원으로 가족원의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볼 때, 가족응집력 강화가 가족의 취약성을 극소화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특히 중년은 여러가지 예기치 못한 문제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며, 가족문제 중 어떤 문제를 겪게 되든지 그 해결책이 가족원의 응집력과 관계되므로, 가족원의 응집력·일체감을 강화하는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2)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와 가족적응력

가족적응력이란 가족내의 권력구조와 역할관계가 갖는 상황성 및 가족이 발달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압력에 대한 가족체계의 대처능력으로, 적응적인 가족체계는 안정과 변화의 균형을 요구한다(Olson et al., 1979, 1983). 즉 가족의 적응성은 지속성을 유지해가는 동시에 변화하는 가족의 능력으로서, 주요문제는 어떻게 체계가 본래의 응집력과 통합력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Olson 등(1983)은 적응력 차원을 경직, 구조화, 유연, 혼란의 수준으로 분류하여, 경직수준일수록 변화능력이 낮고, 혼란수준일 때 변화능력이 큰 가족으로 보았다.

대부분의 연구를 통해 적응력과 가족의 기능은 곡선적 관계로 나타났다. 즉 적절한 수준의 적응력만이 가족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응력이 매우 낮은 가족인 경직된 가족과 적응력이 매우 높은 혼돈된 가족은 가족기능에 있어 역기능적으로 나타나며, 적응력이 적당히 구조화된 가족과 유동적 가족은 가족기능이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또한 가족적응력은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신혼기부터 자녀의 청소년기까지 적응력점수가 점차 감소하여 자녀진수

기인 중년기에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다가, 이 시기 이후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Olson, 1988).

3)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와 가족의 적응력 및 응집력

가족연구자들은 첫째, 가족의 역동성과 가족상호 활동범위를 보다 적은 개념으로 설명하기 위해, 둘째, 결혼 및 가족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셋째, 복잡한 가족체계 및 그 이상의 체계를 단일변수로 설명하기 위해, 가족이론·가족사회학·가족심리학·가족체계이론을 중심으로 응집력, 적응력 및 의사소통 등의 3가지 중심개념이 정상가족과 역기능적 가족을 구분짓는 중추적 개념임을 입증하였다(박초아, 1988; 배은경, 1986; 유순덕, 1987; Bell, 1982; Olson et al., 1983; Olson et al, 1979; Portner, 1982).

이와 같은 적응력·응집력 두 개념이 가족기능과 곡선적 관계에 있다는 가설을 기반으로 하여 Circumplex Model을 만들었고, 이점은 여러 연구를 통하여 입증되고 있다(유순덕, 1987; Bell, 1982; Olson et al., 1979, 1983; Portner, 1982; Rodrick et al., 1986). 이 모델은 가족응집력차원을 과잉분리, 분리, 연결, 미분화의 4가지 수준으로, 가족적응력차원을 경직, 구조화, 유연, 혼란의 4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였고, 이러한 2차원과 8가지 수준의 체계적 특성을 서로 연결하여 16가지 가족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3가지 유형으로 다시 나누어, 응집력과 적응력 양차원 모두 중간수준을 보이는 '균형을 이루는 가족(Balanced Family)', 양차원 모두 양극단에 속하는 '극단수준의 가족(Extreme Family)', 그리고 응집력 및 적응력 중 어느 한 차원에서만 극단을 보이는 '중간범위의 가족(Mid-Range Family)'으로 범주화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여러 학자들은 정상가족일 때, 응집력과 적응력간에 직선관계가 형성된다는 가설을 세워 다양한 가족연구에 용이하도록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이 가설에 의하면 가족응집력 및 가족적응력이 높아질수록 가족기능도 상승한다는 것으로, 가족유형을 응집력과 적응력이 모두 낮은 유형(LL가족), 응집력은 낮고 적응력은 높은 유형(LH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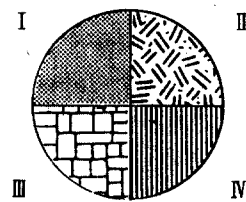
족), 응집력은 높고 적응력은 낮은 유형(HL가족), 응집력과 적응력이 모두 높은 유형(HH가족)으로 분류하였고, 여러 연구를 통해 이 가설이 입증되었다(김진희, 1989; 한영미, 1990; 홍성애, 1988; Beavers & Voeller, 1983; Miller et al., 1985).

그러나 이상과 같은 가족응집력과 가족적응력의 관계를 보는 두 견해 모두, 가족은 그 자체내의 표준적 기대(normative expectation)와 문화적 배경에 따라 기능한다는 점(고승혜, 1985)을 가족연구시 항시 염두에 두어 해당가족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특성을 지닌 가족응집력 및 가족적응력과 가족구조배경과의 관계를 보면, '극단수준의 가족'이 '균형을 이룬 가족'에 비해 비교적 부인의 연령, 남편의 교육정도, 월수입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유순덕, 1987), 특히 사회경제적 변수가 여러 연구결과, 영향력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한영미, 1990).

또한 각 가족유형에 해당하는 가족의 비율은 가족상황·가족생활주기·가족의 사회화 등에 따라 변하게 되나(Hill & Rodgers, 1964), 비율면에서 보면, 가족생활주기단계마다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Olson 등(1988)에 의하여 Circumplex Model 중 '균형을 이루는 가족'이 그 범위내에서 그림과 같이 다시 4등분 되었다(그림 1 참조).



- 유형 I 적응력은 유연적, 응집력은 분리적일 때
- 유형 II 적응력은 유연적, 응집력은 연결적일 때
- 유형 III 적응력은 구조적, 응집력은 분리적일 때
- 유형 IV 적응력은 구조적, 응집력은 연결적일 때

〈그림 1〉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 유형

이 유형을 중심으로 가족생활주기상 심리적 만족도와 가족적응력 및 응집력에 대한 연구결과, 신혼기·노년기에 더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며, 적

용력이 유연적이며 응집력이 연결적일 때(유형 II),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년기에는 만족도가 대체로 낮았으나 그 중 적응력이 유연적이며 응집력이 연결적인 가족(유형 II)이 좀 더 높은 만족도를 갖고 있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발달단계상 적응력이 유연적이며, 응집력이 연결적인 가족이 높은 만족도를 갖는 것으로 결론내리고 있어, 이는 만족도와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간에 상호영향력이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Olson et al., 1988).

3.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① 연령 및 자각연령: 연령과 중년기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에 대한 견해는 학자마다 다른 실정이다. 즉 연령증가에 따른 만족도 감소의 견해(김태현·최정혜, 1989; Ball & Robbins, 1986; Broman, 1988; Olson, 1988)는 중년기여성의 만족도가 자녀진수기에 최저상태로 나타나며, 그 뒤 은퇴기부터 서서히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오히려 전 시기보다 중년기에 생활만족도가 증가한다는 견해(Campbell et al., 1976; Olson et al., 1988)는 연령과 긍정적인 관계로 보고 있다. 반면 한편에서는 행복감, 슬픔 및 기타 감정 등의 만족도는 청년기·중년기·노년기 모두 동일하다는 견해가 등장하여 이 시기에 특별히 생활만족도의 증가·감소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타나고 있다(Hayes, 1971; Larson, 1978).

한편 자각연령과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와와의 관련성은 거의 연구된 것이 없으나, 김명자(1988)의 연구에 의하면 연령자체보다 자각연령이 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 변수로, 자기자신이 젊다고 생각할수록 중년기를 좀 더 안정되게 지낸다고 보았다.

② 자녀수: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와 자녀수의 관계는 일관성이 없게 나타나고 있다. 즉 김태현·최정혜(1989)의 연구에서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 점에 대해 연구자들은 자녀수가 적은 것보다는 많은 편이 가정의 응집력이나 생활상에서 여러 상황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

러나 우리나라의 중년기여성에 대한 연구(김명자, 1989; 박경숙, 1991; 조옥순, 1986)에서는 대부분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와 자녀수간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막내자녀위치: 막내자녀의 독립은 중년기에 매우 의미있는 사건으로서 가족발달이론가들은 중년기를 가족내에 주요역할,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는 시기로 보았다(Livson, 1988; Rohr, 1984). 이러한 시각을 빈동지시기변화에 맞춘 결과, 중년기여성이 스스로 중년기임을 자각하는 것은 자녀들의 진수기임을 알게 되었다(Neugarten et al., 1961). 따라서 자녀독립에 따라 중년기생활만족도는 영향을 받으며, 이 시기는 갱년기장애증상호소나 우울감이 증가하기도 하며(김광욱, 1985; 박경숙, 1991), 혹은 오히려 그 전 단계보다 의미있는 증진이라는 인식을 갖기도 한다(Edwards et al., 1973).

④ 여가활동 및 취업: 많은 연구에서 이 시기의 사회참여·자원봉사·취업은 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고하고 있다(김명자, 1988; 민경애, 1984; 박경숙, 1991; Hayes, 1971). 따라서 그 결과 중년기 가정주부는 취업주부보다, 여가빈도가 낮은 주부가 높은 주부보다 자아확신감이 낮고, 감정적 고통인 심리적 증세를 느끼는 비율이 높아 중년기생활만족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옥순, 1986; Lennon, 1980).

⑤ 사회경제적 지위 및 여성의 학력: 사회경제적 지위와 중년기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는 국내외의 많은 연구가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김명자, 1988; 박경숙, 1991; 조옥순, 1986; Campbell et al., 1976; Hayes, 1971; Larson, 1978; Liang, 1982). 또한 학력수준도 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부분 긍정적인 결과를 지니고 있다(Andrews & Withey, 1976; Edwards & Klemmack, 1973; Campbell et al., 1976).

⑥ 종교: 종교는 인생의 유한성에 직면한 중년기 개인에 있어 실존의 위기를 극복하고 삶의 목표를 재정립하도록 하며, 나아가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신앙생활의 실천정도에 따라 남성보다 더욱 건강과 행복을 지각하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성숙하는데 도움을 받아(이옥무, 1989), 중년기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여겨진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연구로는 Campbell 등(1976)과 Hayes(1971)가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고찰을 통하여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았다. 변인에 따라서는 선행연구에서 조차도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변인의 영향력이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따라서도 다른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도시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이상의 변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구나 생활만족도나 가족적응력·응집력이 문화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구의 선행연구결과들이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지 검토해 볼 필요성도 크다고 본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및 가설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본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2〉 중년기여성의 가족응집력·적응력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3〉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는 일반적 배경변인, 가족응집력·적응력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인가?

〈가설 1〉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는 일반적 배경변인(연령, 자각연령, 자녀수, 막내 자녀위치, 여가활동빈도, 취업유무, 학력, 월평균가계소득, 남편학력, 남편직업유형, 종교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는 가족응집

력·적응력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는 가족응집력·적응력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4〉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용어정의 및 척도구성

① 생활만족도 : 개인의 과거 및 현재생활에 대한 복합적인 만족정도로써 주관적 심리상태를 인지적으로 평가하려는 시도이며, 이는 심리적·환경적 요인과 그 생활역사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생활만족도척도는 Neugarten 등(1961)의 LSIA를 기반으로 하여 그 뒤 꾸준히 개발되었으며, 최정혜·김태현(1989)에 의해 중년기를 대상으로 문항이 작성되었다.

본 연구는 최정혜·김태현(1989)의 척도를 받아들여 예비조사를 통해 신뢰도와 문항분석을 한 결과, $P<.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13문항이 채택되었고, Cronbach's α 는 .73으로 높은 편이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에 이르기까지 5점 Likert방식을 적용하여, 점수가 높을 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②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 : 가족응집력이란 "중년기여성이 인지한 가족원들 상호간의 정서적 유대, 공동의 관심, 애정, 협력 등 상호친밀감을 느끼는 정도"이며, 가족적응력도 "중년기여성이 인지한 가족의 변화능력으로 상황 및 발달단계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압력에 반응하여 가족체계의 권력구조, 역할관계 및 관계규칙의 변화능력"으로 정의된다.

본연구의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척도는 Olson, Portner과 Lavee(1985)의 FACESⅢ(The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version Ⅲ)를 모체로 하여, 우리나라 중년기여성에게 적절하도록 번안·수정하여 가족응집력·적응력 각각 10문항을 작성하였다.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신뢰도와 문항분

석을 한 결과, $P < .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문항으로는 가족응집력이 10문항, 가족적응력이 8문항이 채택되었고, 이들의 Cronbach's α 는 각각 .86, .67로 나왔다. 두 척도 모두 5점 Likert형으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으로 표시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연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년기여성으로 적어도 막내자녀가 중학교 이상에 재학중이며 배우자가 있는 40-59세인 여성으로, 서울시내의 2개 고등학교와 3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예비조사는 1991년 7월에 실시하여 척도를 수정한 후, 동년 9월에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총 300부를 배부하였으나 응답이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243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된 자료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및 평균을 사용하였고<표3>,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PC+프로그램의 분산분석(ANOVA), 사후검증인 Scheffe's test, 상관관계분석,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IV. 분석결과 및 해석

1.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일반적 경향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일반적 경향을 파악한 결과<표 1>, 생활만족도평균은 3.12이며, 조사대상자의 약 50%가 3.08-4.92 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응답자들은 보통정도의 생활만족도를 지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 수준 (n=243)

변인	평균	표준편차	중앙치	최소값	최대값	범위
생활만족도	3.12	.52	3.08	1.92	4.92	3.00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현재 중년기여성은 예측 불허의 특별한 사건을 겪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기의 변화에 대해 별다른 혼란없이 지낼 수 있으리라 본다(Neugarten, 1975).

2. 중년기여성의 가족응집력과 적응력의 일반적 경향

중년기여성의 가족응집력과 적응력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응답결과<표 2>, 가족응집력은 평균 3.70이며, 응답자의 50%가 3.70-5.00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소 높은 가족응집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년기여성이 지각한 가족적응력의 평균은 3.29로, 응답자의 50%가 3.25-4.88점수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응집력보다는 다소 낮은 중간수준정도의 적응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족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유용한 개념인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 두 변인은 가족내·외적 요인에 대응하여 적절한 수준을 지니고 있으므로, 응답자는 가족원 상호간에 지나는 정서적 유대, 공동의 관심, 애정, 협력 등 상호친밀감을 어느 정도 느끼며, 동시에 대처능력을 지닌 안정·변화의 균형을 적정수준 요구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표 2> 중년기여성의 가족응집력과 적응력 수준 (n=243)

변인	평균	표준편차	중앙치	최소값	최대값	범위
가족응집력	3.70	.60	3.70	2.00	5.00	3.00
가족적응력	3.29	.53	3.25	1.38	4.88	3.50

3. 각 변인에 따른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

1) 일반적 배경변인과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는 일반적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취업유무·종교유무에 따른 차이를 T검증하고 나머지 변인에 대해서는 일원변량분석(ANOVA)과 사후검증인 Scheffe's test를 실시하였다.

〈표 3〉 일반적 배경변인에 따른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

(n=243)

변 인	집 단	빈도(%)	평 균	유의도 F/T값 유의도	Sheffe	
연령	40-44세	29(11.9)	3.26	F=3.29*		
	45-49세	97(39.9)	3.18			
	50-54세	81(33.3)	3.09			
	55-59세	36(14.8)	2.91			
자각연령 ¹⁾	높 음	32(13.2)	3.01	F= .79		
	동 일	47(19.3)	3.13			
	낮 음	164(67.5)	3.14			
자녀수	2명이하	79(32.5)	3.22	F=2.34		
	3명	91(37.4)	3.11			
	4명	42(17.3)	3.09			
	5명이상	31(12.8)	2.94			
막내자녀 위치	중학교재학	30(12.3)	3.22	F= .77		
	고등학교재학	89(36.6)	3.09			
	대학교재학	113(46.5)	3.13			
	기 타	11(4.5)	2.99			
여가활동 빈도	없음	42(17.3)	2.96	F=4.81**	A	
	1	100(41.2)	3.04			AB
	2	61(25.1)	3.27			B
	3이상	40(16.5)	3.25			AB
취업유무	유	50(20.6)	3.15	T= .43		
	무	193(79.4)	3.11			
학력	중졸이하	58(23.9)	3.05	F=1.42		
	고졸	120(49.4)	3.10			
	2년제대졸이상	65(26.7)	3.20			
월 평 균 가계소득	79만원이하	11(4.5)	2.96	F=3.14*	AB	
	80-129만원	43(17.7)	2.94			A
	130-199만원	65(26.7)	3.08			AB
	200-299만원	64(26.3)	3.27			B
	300만원이상	60(24.7)	3.16			AB
남편학력	중졸이하	18(7.4)	2.92	F=1.53		
	고졸	74(30.5)	3.11			
	2년제대졸이상	151(62.1)	3.15			
남편직업 유형	무직 및 하위서비스· 판매·노무직	32(13.2)	2.99	F=2.16		
	기능직 및 사무직	128(52.7)	3.10			
	전문·관리직	83(34.2)	3.20			
종교유무	유	189(77.8)	3.12	T= .02		
	무	54(22.2)	3.12			

* P < .05 ** P < .01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령, 여가활동빈도, 월평균가계소득 등에 따라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는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중년기여성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연령집단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인다. 즉 40-44세집단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으며, 45-49세, 50-54세, 55-59세의 순서대로 생활만족도가 낮아지나, 사후검증결과, 집단간 분류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차이가 미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4, 50대에 연령증가에 따라 만족도가 감소한다는 최정혜·김태현(1989)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여가활동을 빈도수에 따라 4집단으로 나누어 여가활동빈도별 생활만족도를 살펴보면, 여가빈도에 따라 유의한($P < .01$) 차이를 보인다. 즉 여가활동이 적정수준 증가할수록(2가지)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여가활동이 없거나 1가지일 때보다는 2가지가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며, 그보다 많은 경우 다소 만족도가 줄어들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김명자(1989)와 박경숙(1991)의 연구와 부합되는 것으로, 적절한 여가활동은 중년기여성에게 완충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긍정적인 삶으로 이끌 수 있는 요인이라 보여진다.

월평균가계소득은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5집단으로 분류한 결과, 80-129만원집단이 가장 생활만족도가 낮고, 그 다음이 79만원이하, 130-199만원, 200-299만원 순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다가, 300만원 이상집단일 때 다시 감소추세를 보인다. 이상의 결과는 소득과 생활만족도간 정적상관이 있다는 Ball과 Robbin(1986)연구 및 Broman(1988)연구와 부분적으로 부합되는 것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보여 주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배경변인은 연령, 여

가활동빈도, 월평균가계소득으로 밝혀져 〈가설 1〉은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2)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과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에 따라서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와 가족응집력간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그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표 4〉, 생활만족도와 가족응집력간에는 의미있는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생활만족도가 높을 수록 중년기여성이 지각한 가족응집력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김명자의 연구(1991)와 유사한 것으로 가족주의가 바탕에 깔린 우리나라 가족생활에서는 가족응집력이 내외적인 상황·문제에 대처하는 가족자원으로서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이와 더불어 〈표 4〉에서 보듯이, 생활만족도와 가족적응력 역시 의미있는 정적상관관계를 보여, 생활만족도가 높을 수록 중년기여성이 지각한 가족적응력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기존연구가 국내에 없는 관계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중년기가족에게 있어 적절한 변화가 생활만족도에 주요한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겠다.

〈표 4〉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와 가족응집력·적응력의 적률상관관계

주요변인	1	2	3
생활만족도	1.00		
가족응집력	.51**	1.00	
가족적응력	.27**	.47**	1.00
평균	3.12	3.70	3.29
표준편차	.52	.60	.53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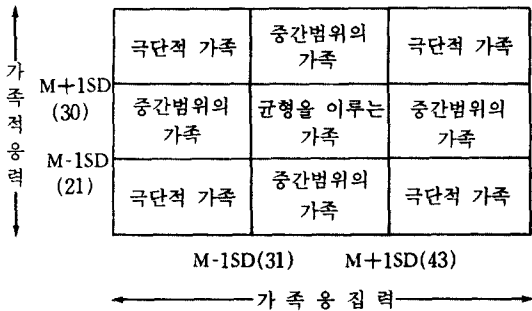
1) 자각연령 Barad(1987) 연구에 근거하여 자각연령에 대한 3문항의 연령을 평균으로 산출한 뒤 이를 실제연령과 비교하여, 더 낮게 자각한 경우(낮음), 동일하게 자각한 경우(동일), 더 높게 자각한 경우(높음)으로 3등분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가설 2>는 긍정되므로,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가족응집력·적응력이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겠다.

3)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유형과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는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리라는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ANOVA)과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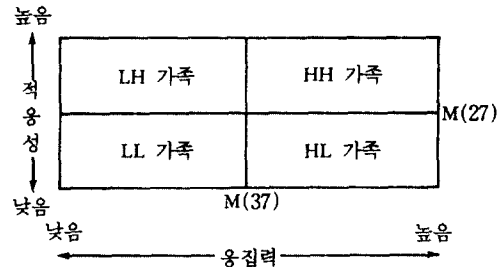
먼저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유형을 <표 5>과 같이 유형 I 과 유형 II로 나누어, 유형 I 은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과 생활만족도간의 관계를 곡선적 가설에 입각하여 각각의 점수에 따라 '균형을 이루는 가족', '중간범위의 가족', '극단적 가족'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다<그림 2>.



<그림 2> 가족응집력·적응력 유형 I

그 결과<표 5>, 본연구대상에서는 '극단가족'은 없었으며, 가족유형별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과 가족기능(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의 관계가 곡선적이라는 가설은 다른 국내연구(한영미, 1990)와 같이 부정되었으며, Olson 등(1983)의 Circumplex Model를 우리나라 가족에 수정·보완없이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이 다시금 입증되었다.

한편 유형 II는 가족응집력·적응력과 생활만족도간의 관계를 직선적 가설로 보고, 첫째, 응집력과 적응력이 모두 낮은 가족(LL가족), 둘째, 응집력은 낮고 적응력은 높은 가족(LH가족), 셋째, 응집력은 높고 적응력은 낮은 가족(HL가족), 넷째, 응집력과 적응력이 모두 높은 가족(HH가족)집단으로 구분하였다<그림 3>.



<그림 3> 가족응집력·적응력 유형 II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HH가족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으며, HL, LH, LL가족집단의 순서대로 생활만족도가 점차 낮아진다. 또한 사후검증결과, LL

<표 5> 가족응집력·적응력변인에 따른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

(n=243)

변인	집단	빈도	평균	표준편차	검증	Scheffe
유형 I	균형을 이루는 가족	149	3.10	.45	F=.53	
	중간범위의 가족	94	3.15	.61		
유형 II	LL 가족	80	2.86	.37	F=1.11***	A
	LH 가족	38	3.05	.60		AB
	HL 가족	49	3.26	.45		BC
	HH 가족	76	3.33	.55		C

*** P < .001

가족과 LH·HH가족에서, 그리고 HH가족과 LL·LH가족에서 유의한 차를 보였다. 결국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이 모두 높을 경우,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가 높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이 시기에 가족응집력과 적응력을 모두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본연구결과는 김진희(1989), 한영미(1990), 홍성애(1984) 등 국내의 대다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 유형 II가 우리나라에서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에 따라 가족기능(생활만족도)을 분류할 때 좀 더 적절한 유형으로 여겨진다.

4. 관련변인들의 설명력

각 특성변인들의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이냐, 이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연구문제 4>를 검증하기 위해 단계별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5%수준 이상에서 유의한 변인만을 선정하였다(표 6).

표에서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은 가족응집력($\beta=.49$)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여가활동빈도($\beta=.14$), 연령($\beta=-.13$), 월평균가계소득($\beta=.12$)의 순이고, 나머지 변인은 제거되어 회귀분석은 4단계에서 종결되었다.

즉 가족응집력이 클수록, 여가활동빈도 및 월평균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며, 중년기내의 연령이 감소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짐이 밝혀졌다.

이상과 같이 네 변인의 설명력은 .33으로, 이는 생

활만족도의 전체분산 중 33%를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가 4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볼 때, 이 시기의 생활만족도를 최대화하기 위하여는 위의 변인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본 결과를 통해 또 한번 우리나라의 가족생활에 가족적응력보다는 응집력이 굳건한 가족자원이라는 점이 밝혀짐으로서 가족응집력을 강화시켜 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도록 도모해야 할 것이다.

V. 결 론

본연구에서는 질문지를 사용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40-59세 중년기여성 243명을 대상으로 SPSS/PC+프로그램의 ANOVA, Scheffe's test, 상관관계 분석,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을 연관시켜, 생활만족도에 대한 각 변인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독립적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와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은 중간에서 다소 높은 정도의 수준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생활만족도는 연령, 여가활동빈도, 월평균가계소득 등의 일반적 배경변인과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다른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각 변인이 갖는 독립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가족응집력, 여가활동빈도, 연령, 월평균가계소득의 순으로 설명력이 있음이 밝혀졌다.

이상의 연구결과 및 해석을 토대로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몇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n=243)

독립변인	B	β	R ²	F	회귀상수	R ²	F
가족응집력	.42	.49	.26	9.11***			
여가활동빈도	.08	.14	.30	2.62**	1.44	.33	28.92***
연령	-.07	-.13	.31	-2.32*			
월평균가계소득	.05	.12	.33	2.27*			

* P < .05 ** P < .01 *** P < .001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통계자료와 설명은 우리나라 중년기여성의 일부를 이해하는 자료에 불과하며, 특히 생활만족도를 다룬 연구는 거의 전무하므로, 연구결과를 비교·분석하여 그 영향력을 평가하는 체계적인 연구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중년기여성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축척을 통해, 중년기의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을 포함한 모델설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리라 보며, 나아가 가족과 사회와의 보다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중년기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그가 속한 가족의 응집력 및 적응력을 파악하는 것이 좀 더 가족에 맞는 가족유형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여겨지며, 점점 다양화되어가는 가족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무자녀가족, 이혼가족, 입양가족, 편부모가족, 문제가족 및 임상가족까지도 연구대상을 확대·심층화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와 더불어 지역적·문화적 영향력도 동시에 비교하여 그 가족에 적절한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생활만족도연구시 객관적 변인 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주관적 변인을 포함한 연구가 시도된다면, 중년기여성이 겪게 되는 내·외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활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노년기생활만족도까지 내다볼 수 있는 성인교육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가족학측면의 과제일 것이다.

【참고문헌】

- 1) 고승혜(1985).가족체제상호작용유형과 청소년의 성격차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김광옥(1985).중년여성의 특성과 결혼적응도와 갱년기장애와의 관계.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김명자(1988).중년기위기감 및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 _____(1989).중년기연구.서울:교문사.
- 5) _____(1991).중년기부부의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양식과 위기감.대한가정학회지, 29(1), 203-216.
- 6) 김순옥(1988).부모자녀간의 응집성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 28(1), 115-131.
- 7) 김재인(1989).후기성인을 위한 사회교육과 생활만족도 상관연구.한국노년학회, 139-163.
- 8) 김진희(1989).부모-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김태현·최정혜(1989).성인기 발달과업 성취도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성신여대생활문화연구소 생활문화연구, 4, 125-145.
- 10) 민경애(1984).주부의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의 실태와 지향에 대한 연구.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민성길 외(1979).복강경불입수술에 대한 정신의학적 연구.대한산부인과학회잡지, 22(2).
- 12) 박경숙(1991).중년기여성의 적응에 관한 연구-패경에 대한 태도와 성역할정체감변화를 중심으로-.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3) 박아청(1984).변모하는 한국 중년여성의 생활스타일의 모색.계간성인교육, 2(2).
- 14) 박초아(1988).청년기 대학생 자녀와 부모간의 가치합의와 자녀가 지각한 가족응집성·적응성간의 관계.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배은경(1986).가족치료의 체계론적 접근에 관한 비교연구.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6) 유순덕(1987).Circumplex model에 입각한 한국의 임상가족과 일반가족의 비교연구.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7) 윤진(1985).성인·노인심리학.서울:중앙적성출판사.
- 18) 이기숙(1983).가족주기적 측면에서 본 중년기가족의 문제.부산여자대학교 논문집, 12, 455-472.
- 19) 이옥무(1989).중년여성의 갱년기증상호소정도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 조옥순(1986).일지역 중년여성의 갱년기 증상호소에 관한 조사연구.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1) 한영미(1990).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유형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2) 홍성애(1984).가정환경과 가족체제상호작용유형이 청년기의 자아체제감형성에 미치는 영향.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3) Andrews, F.M.& Withey, S.B.(1976).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n's perception of life quality. N.Y. & London : Pleum Press.
- 24) Ball, R.E.& Robbins, L.(1986).Merital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black Americans.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389-394.
- 25) Beavers, W.R.& Voeller, M.N.(1983).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Olson circumplex model with the Beavers systems model.Family Process, 22(1), 85-97.
- 26) Bell, R.Q.(1982).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in families with runaways : Interaction types and the Circumplex mod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27) Broman, C.L.(1988).Household work and family life satisfaction of blacks.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743-748.
- 28) Cameron, L.(1988).Theories of family adaptability:Toward a synthesis of Olson's Circumplex and the Beavers systems model.Family Process, 27, 73-92.
- 29) Campbell, A., Converse, P.E., & Rodgers, W.L.(1976).The Quality of Life : Perce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s.N.Y.:Russell Sage Foundation.
- 30) Carpenter, P.J.(1983).Family cohesion, adaptability, and offspring adjustment:The discriminative power of the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Ph.D.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4(1), 296-A.
- 31) Clark, J.(1984).The family types of schizophrenics, neurotics, and normals.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University of Minnesota.
- 32) Deutscher, I.(1975).The Quality of postparental life.Middle Age and Aging, ed., B.L.Neugarten, Chicago: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33) Edwards, J.N.& Klemmack, D.L.(1973).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 A reexamination.Journal of Gerontology, 28, 497-502.
- 34) Erdwins, C.J., Mellinger, J.C.& Tyer, Z.E.(1981). A comparison of different aspects of self-concept for young, middle-aged, and older wome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7(3), 484-490.
- 35) Farrel; M.& Rosenberg, S.D.(1981).Men at midlife. Boston:Simon and Schuster.
- 36) Galvin, K.M.& Brommel, B.J.(1982).Family communication:The cohesion and change III.Scott, Foreman and Company.
- 37) Gould, R.L.(1972).The phases of adult life.the Journal of Psychiatry, 129(5).
- 38) Hayes, M.P.& Stinnett, N.(1971).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husbands and wives.Journal of Home Economics, 63(9), 669-674.
- 39) Herring, L.L.(1985).The effect of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on psychosexual development. Ph.D.Dissertation Kansas Univ. i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6(3), 806-A.
- 40) Hill, R.& Rodgers, R.(1964).The developmental approach.In H.T. Christensen(Ed.),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Chicago : Rand McNally.
- 41) Jackson, K.(1965).The study of the family. Family Process,4, 1-20.
- 42) Kennedy, G.E.(1984).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family cohesion, adaptability and stress in blended, single-parent and intact families.Ph.D.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 44(9), 2899-A.
- 43) Larson, L.(1978).Thirty years of research on the

- subjective well-being of older Americans, *Journal of Gerontology*, 33, 109-125.
- 44) Lavee, Yoav.(1985).Family type and family adaptation to stress: Integrating the circumplex model of family systems and the family adjustment and adaptation response mod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45) Lennon, M.C.(1980).Psychological reaction to menopau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Columbia University.
- 46) Levinson, D.J.(1978).The seasons of man's life. N.Y.:Knopf.
- 47) Liang(1982).Sex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 36(1).
- 48) Livson, F.B.(1988).Being and becoming old. Baysood Publishing Company Inc.
- 49) Livingstone, B.H.(1985).Discrepancy in family perceptions: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50) Miller, I.W., Epstein, N.B., Bishop, D.S.& Keitner, G.I.(1985).The McMaste family assessment device: Reliability and validit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1, 345-356.
- 51) Minuchin, S.(1974).Families and family therapy. Boston:Harvard University. Press.
- 52) Neugarten, B.L.(1975).The awareness of middle age. *Middle Age and Aging*, ed., B.L.Neugarte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93-98.
- 53) _____, Havighurst, R.J.& Tobin S.S. (1961).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
- 54) Nydegger, C.N.(1976).Middle age: Some early returns ... a commentary.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7(2), 137-141.
- 55) Olson, D.(1988).Family types, family stress, and family satisfaction: A family development perspective. *Social stress and family development*. N.Y.: The Guilford Press.
- 56) _____, Namilton I & McCubbin.(1988).Type of families and family response to stress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Family transions-continuity & Change over the life cycle*. N.Y.: The Guilford Press.
- 57) _____, Sprenkle, D., & Russell, C.(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family types and clinical application. *Family Process*, 18, 3-28.
- 58) _____, Portner, J.(1983).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59) Peplau, H.E.(1975).Midlife crisis. *Americal Journal of Nursing*, 75(10), 1761-65.
- 60) Portner, J.(1982).Parent-adolescent inteaction of families in treat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61) Redl, Fritz, & Wineman(1951).Children who hate. N.Y.:Praeger.
- 62) Rodick, J.D., Henggler, S.W.& Hanson, C.L. (1986).And evaluation of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and the Circumplex model.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4, 77-87.
- 63) Rohr, K.G.(1984).Transition to the empty nest: Changes in parental optimism and parental fatalis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64) Satir, V.(1964).Conjoint family therapy. Palo Alto, CA: Science and Behavior Books, Inc.
- 65) Smith, D.E.(1986).The relationship of family cohesion and family adaptability to family satisfaction: A study of family stress pile up. Ph.D.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 i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7(3).
- 66) Troll, L.E., Miller, B.& Atchley, R.(1979).The family of later life. Belmont, CA: Wadsworth Press.
- 67) _____(1982).Continuations: Adult development and aging. Monterey: Books / Cole.